



분주해지는 농촌 영농철을 맞아 3일 석가탄신일에도 아랑곳 않고 광주시 남구 대지동 농민들이 모판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황금연휴 나들이 '안전사고 주의보'

꽃가루·미세먼지 주의...산악사고 봄철에 집중 야생진드기·벌 조심하고 생어패류 가려 먹어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에 휴일도 이어지면서 들뜬 마음을 안고 산과 바다, 농촌 들녘 등으로 야외활동에 나서는 가정이 늘어나는 5월이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절정을 이루는 꽃가루, 야생진드기, 독사와 벌떼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산하기에 안성맞춤인 5월에 산악사고 역시 단풍철인 9~10월 다음으로 가장 자주 발생한다는 통계를 보면 '산을 찾을 때 자신감은 집에 두고 가는 것'도 안전한 산행의 비법이다.

◇꽃가루·미세먼지...등산하기 좋은 5월 사고도 최다= 3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예보에 따르면 4일과 어린이날인 5일 광주·전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바깥 나들이하기에 나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꽃가루가 절정인 시기

인 만큼 알레르기 비염·결막염 환자, 천식 등 기관지 환자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방이 신록의 연둣빛으로 물든 광주 무등산, 영암 월출산, 광양 백운산, 보성 일립산·제암산, 목포 유달산 등 남도의 주요 산을 찾는 발걸음이 잇따르는 5월은 공교롭게도 산악사고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119구조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산악구조 활동 건수는 총 1만86건으로 4월(673건)에 비해 무려 73% 증가했다. 연간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2시(1236건)로,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방심한 채로 하산하면서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선 자신감을 내려놓고 무리한 산행을 자제해

야한다고 당부했다. 읍주 산행, 내리막길에서 뛰는 행동을 삼가고 해가 지기 전 하산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국민안전처는 또한 한국소비자원 자료(2014~2016년) 분석결과, 최근 3년간 야외 놀이·스포츠 시설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총 6438건이 일어났으며, 이 중 5월에 708건이 집중됐다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생진드기, 비브리오패혈증·독사·벌 '주의보' = 교통사고 외에도 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 둘이 아니다. 광주에서 지난 2일 울 들어 첫 감염(50대 여성)이 확인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이종 하이다.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증세가 나타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관내 야산과 등산로에서 야생 참진드기를 채집한 결과 지난 1월 18마리, 2월 9마리, 3월 65

마리에서 지난달엔 402마리로 급증했다. SFTS는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환자는 전국적으로 2013년 36명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증가했으며 지금까지 73명이 숨졌다. 야생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9월에 주로 발생한다.

어패류를 매개로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도 지난달 22일 국내에서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행락철을 앞두고 광주시가 지난 2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발열, 오한, 복통, 구토가 나타난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만큼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좋다고 광주시는 당부했다.

지난 1일 완도군 청산도에서 발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독사에 물려 해경에 의해 이송되는 등 독사와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9 | 해질 19:20 | 달 뜨기 13:05 | 달 지기 01:56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15/26	보성	11/22
목포	15/23	순천	13/23
여수	15/22	영광	12/25
나주	11/24	진안	13/22
완도	14/21	전주	14/27
구례	11/24	산남	14/27
강진	12/23	남원	11/25
해남	12/22	홍산도	13/19
장성	12/24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0.5~1.5	남동	0.5~1.5	
남부	남동	1.5~2.5	남동	1.5~3.0	
남해	남동	0.5~1.5	남동	1.0~2.0	
서부	남동	1.5~2.5	남동	2.0~3.0	
남해	남동	1.5~2.5	남동	2.0~3.0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높음
피부질환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07	08:46
	14:22	21:12
여수	10:24	03:46
	22:33	16:45

◇주간 날씨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	☁	☀	☁	☁	☀	☀
15/23	13/21	9/24	12/26	14/20	14/25	15/25

어린이날 선물 같은 '날씨'

비 새벽에 그쳐 맑고 선선

“어린이날 날씨 걱정 마세요. 새벽에 비가 그친데요. 미세먼지도 없고 덥지도 않네요.”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어린이날인 5일 새벽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나들이 출발 시 각인 아침엔 광주·전남 전역이 개쨌다고 예보했다.

4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유입되면서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는 5일 새벽까지 내리다가 아침에

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우량은 광주·전남 5~10mm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5일 예상 기온은 아침 최저 13~17도, 낮 최고 19~26도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과 휴일인 6~7일 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되찾아 봄날씨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초여름 더위가 4일 밤 비가 내리면서 꺾이겠다”며 “어린이날 아침 비가 그치고 기온도 선선해 야외에서 뛰어놀기 좋겠다”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퓨전라면 수입 돼지고기 국산 둔갑

광주 송정역·화순 고인들 야시장 업체 3곳 원산지 위반 과태료

지역 대표 야시장에서 일부 업체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광주·전남지역 9개 야시장 114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공품과 조리음식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농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퓨전라면 등의 메뉴로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매주 1회씩 원산지 표시를 중점 지도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 10개반 20명을 동원해 광주·전남지역 9개 야시장 내 농산물공품, 축산물 및 쌀 등을 조리 판매·제공하는 업체 1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전남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홍보활동으로 야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

광양 백운산 불...0.03ha 태워

3일 전남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37분께 광양시 옥룡면 담곡마을 인근의 백운산 중턱에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산불진화대 30여명, 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해 약 1시간여 만에 진압했다. 이 화재로 산림 0.05ha가 불에 탔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당국은 등산로 입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새벽 2시55분께는 영암군 영암읍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03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전은재기자 ej6621@

남구 '월산동 달피마을' 도시가스 공급

내년까지 주거환경 개선

필요한 자기부담 비용이 부담을 느껴 도시가스 공급관 등 시설 설치를 미뤘다. 남구는 달피마을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데다 저소득 주민들인 점을 감안해 수혜자 부담(시설 사용 및 보일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달피마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겨울철 난방비 경감, 연탄 이용 세대 불편 해소 등 주거여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는 월산동 달피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며 국비 등 5억2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월산동 고지대 달피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370세대는 연탄과 석유에 견줘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지금껏 도시가스 공급에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임로 392(월곡2동 679-3)